

## 2013 년도(Class of 2017) 아이비리그 및 명문대학 조기지원(ED/EA) 분석 6

(조기 입학을 위한 전략)

첫째, 음악, 아트, 운동 등에서 적어도 두 개 정도를 일정한 위치까지 도달하면서 12 학년까지 지속적으로 한다.

둘째, 9-12 학년까지 아카데미 코스 Plan 을 가장 현실적이면서 도전적으로 짜고, 학년별 해결 해야 할 SAT 2, AP, SAT1 등의 점수를 11 학년 말까지 해결 한다.

셋째, 여름 방학마다 한국에서 학원만 다니는게 아니라 음악, 아트, 디베이트, 리더십, 작문, 스포츠, 외국어, 리서치, 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와 열정, 그리고 재능을 동시에 보여 주어야 한다.

넷째, 학교 내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상(award)을 받도록 하면 교외에서도 적어도 주(State)레벨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다섯째,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충분 조사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 하면 10 학년말 이면 좋다.

여섯째, 학교에서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며 공동체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조기 지원 대학 결정은 사실 11 학년말쯤 어느 대학으로 지원할 지를 알아야 하며 그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학교 방문, 입학 담당자와 전화 또는 이메일, 인터넷, 그리고 대학 원서를 미리 읽고 준비하며 대학에 필요한 모든 점수는 미리 받고, 여름방학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는 학생들이 유리하다.

(입학 보류(defer) 또는 대기자(Waitlist)들이 주로 업데이트한 자료)

1. 700 또는 이하의 SAT 2 시험 점수를 향상하기 위해 다시 한번 SAT2 과목을 응시
2. 도전적인 12 학년코스에서 최고의 성적을 유지
3. 국가적인(National) 경시대회 레벨에서 입상
4. 새로운 리더십이 선출
5. 봄 스포츠 종목 캡틴에 선출되거나 학교 팀이 우승 또는 결승 진출 등의 업데이트 정보를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입학 보류자들이 해야 할 일)

1. 가능한 입학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보기

2. 학교 칼리지 카운셀러가 대학에 전화에 많은 장점을 언급하게 하고 가능한 추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기
3. 시험 성적이 부족하면 1 월 달 시험에 응시하여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한다.
4. 리더십, 상, 경시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5. 3 월초에 한 장짜리 편지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시켜 대학에 보내며 선택 학교에게 알린다.
6. 새로운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대학에 알리면서 내 원서에 입학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한다.
7. 입학 보류 되자마자 학교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관심을 보이며 관련자가 없다면 음성 또는 메모를 반듯이 남긴다.

(입학 보류자들이 하지말아야 할점)

1. 포기하지 않기
2. 너무 많은 자료들을 1, 2 월 달에 대학에 보내지 않기
3. 음악 CD, 비디오, 긴 페이퍼, 많은 추가 추천서 등을 대학에 보내 원서를 두껍게 하지 않기
4. 대학 입학 사정관실에 너무 많은 전화나 이메일 삼가기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조기지원 후 입학이 보류(defer)된 학생들이 정규과정에서 입학 허가되는 경우는 약 100-20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된 학교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정규과정에 더 매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필자가 그 동안 게재한, 그리고 앞으로 게재할 모든 칼럼들은 보스톤 교육원의 소유물들으로써, 보스톤 교육원의 허가 없이 무단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전시, 판매, 출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및 각 종 정보 서비스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배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